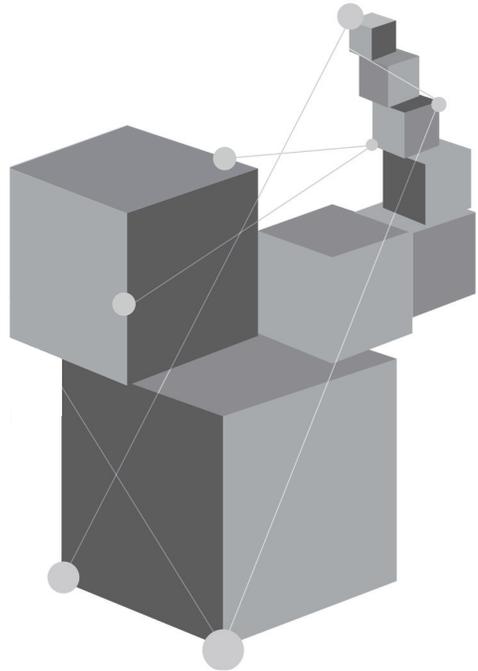


사생활 보호



1.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 2012-107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2. 중앙일보 발행인 송 필 호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5월 21일자 1면 「통진당 김재연 당선자도 의정부 시택으로 주소 이전/진보 정치인의 ‘또다른 꼼수’」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6면 「당원명부만은 …」 혁신위도 당권파도 檢압수수색 반발」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중앙일보 5월 22일자 4면 「이석기·김재연 사퇴시한 넘겨 … 비대위 출당 압박」 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헤럴드경제와 중앙일보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당선자가 당적을 서울시당에서 경기도당으로 바꾸기 위해 주소지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시택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부모가 사는 전원주택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헤럴드경제는 1면에 정원수가 우거진 전원주택 정문 칼라사진을, 3면에는 본채와 정원을 찍은 사진을 흑백으로 실었고, 중앙일보는 본채와 정원수, 텃밭을 담은 칼라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을 본 근처 주민들이라면 어느 집인지를 쉽게 식별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 당선자가 공인인 것과는 달리 시부모는 평범한 시민이다. 따라서 굳이 사진까지 게재하여 이들의 주거지와 나아가 신분을 노출시킨 것은 불의의 피해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을 공공연히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158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2년 8월 23일자 1면 「요새같은 저택에 비밀통로 있다」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상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데이트 장소였던 이병현의 주택, 입구가 3개였다.

두 사람이 주로 밀애를 즐겼던 장소로 알려진 이병현의 집은 경기도 광주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 집은 옆에 도랑이 있어 물 흐르는 소리가 크게 울리기만 했을 뿐 조용했다. 또 여느 고급 주택처럼 대문과 차가 들어오는 문을 제외하고 벽이 높게 둘러쌓여 폐쇄적이다. 하지만 벽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차를 주차시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대문이 보인다. 이민정이 이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작은 대문을 통해 드나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조금 더 오르면 이병헌의 어머니가 직접 재배하시는 것으로 추측되는 텃밭이 등장한다. 그 텃밭을 따라 현관과 연결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텃밭은 별도의 철망 없이 오픈됐으며, 이병헌의 가족들이 먹기에 충분해 보이는 채소와 과일이 재배되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이민정은 이병헌을 만날 때 무려 3개의 입구를 통해 드나들 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동네 주민들을 비롯해 타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주변 식당 “지난해까지는 자주 왔다. 올해는 배달만”

이병헌의 집 주변에는 식당이 꽤 많다. 한우 전문점, 이탈리아 레스토랑부터 보리밥 정식 집까지 다양한 식당이 주변에 있다. 그 식당들에는 이병헌이 직접 사인을 한 흔적 등이 남아있었다. 주변 식당 관계자들은 모두 이병헌을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까지는 자주 가족들과 지이들과 식당을 찾았다는 이병헌, 하지만 올해 들어서 배달을 가끔 시킬 뿐 자주 오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이병헌과 함께 이민정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전에 공개 연애를 해 본 적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테고, 집에서 시켜먹는 게 더 편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 이민정, 고급 빌라의 전용 입구로 드나들어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민정의 집은 고소영이 결혼 직전 살았던 빌라로 유명하다. 고가의 이 빌라는 사생활 보호가 철저해 연예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빌라로 알려졌다. 특히 이민정의 집은 1층으로 전용 입구로 이뤄졌다.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주민들과의 접촉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민정은 주로 전용 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집을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이 방문을 하거나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더라도 남들의 눈에 쉽게 띄기 힘든 구조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인 이병헌과 이민정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이병헌의 집에서 주로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집의 구조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병헌의 집 사진도 게재했는데 집의 전체적인 외관을 큰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와 별도로 정문과 작은 쪽문, 텃밭에 이어지는 현관 모습을 작은 사진 세 컷에 담아서 보여주었다.

유명 배우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상세하게 가옥구조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도」 ③(사생활 등의 사진 촬영 및 보도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206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국민일보 2012년 11월 9일자 12면 「“공부가 유일한 희망” … 폐암 4기 수험생 퇴원해 응시/항암치료 받으며 화상 수업 … 수시 1차 합격/급성 맹장염 걸린 여학생도 수술 미루고 시험/경찰순찰차·구급차 지각 수험생 수송 맹활약」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11월 9일자 A31면 「폐암·백혈병 … “그래도 대학 포기못해”/“대학생 되면 미팅 꼭 해보고 싶어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국민일보와 매일경제는 위 적시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국민일보)= 『몸이 아파도, 수험표가 불타도, 교통이 막혀도 수험생의 의지

는 꺾이지 않았다.

폐암 4기 판정을 받고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김동희(18)군은 8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지난 6일 퇴원했다. 병마도 수험생 김군의 투혼을 막지 못한 것이다. 김군은 경기도의 한 고교에 마련된 특별고사실에서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2010년 4월 유잉육종이라는 희귀한 근육암에 걸린 뒤 잦은 전신마취로 기억력은 감퇴했고 항암치료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 화상 수업을 들으며 학업을 계속했다. 김군은 강원도 한 대학 수시 1차에 합격해 이번 수능에서 한 과목만 최저학력 기준을 넘으면 최종 합격된다. 김군은 “줄곧 아프기만 하다 보니 오히려 절박한 꿈이 생겼다”며 “공부만이 제가 병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고, 또 전부였다”고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44)는 “수능일 이틀 전까지 폐에 관을 꽂고 있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지만 아이가 시험을 보려고 식사도 악착같이 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갑자기 급성맹장염에 걸린 김모(18)양도 수술을 미루고 시험을 봤다. 김양은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수술을 미루고 병실에서 응시했다.(하략)』

(매일경제)= 『“대학 가면 꼭 미팅을 해보고 MT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거예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혈액암을 앓고 있는 이한비 양(19)은 수능 성적에 대한 부담만큼이나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이양은 8일 경기도 안산 초지고등학교 특별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세균 감염을 대비한 마스크를 비롯해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했다. 이 양이 자신의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0년. 직전 해부터 느끼던 허벅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 찾은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 다행히 허벅지의 종양은 제거했지만 암세포는 이미 폐로 전이된 상태였다. 이렇게 시작된 항암 치료로 지난해 수능은 치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항암 치료도 이양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으로 지정받은 뒤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업일수를 채우고 수능에 응시했다. 이양은 “많이

아플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미래에 대한 더욱 강한 애착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진로에 대한 생각도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 커졌다. 이양은 “막연한 꿈밖에는 없었지만 아프면서 생명이나 건강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됐다”며 “식물 및 종자 개발을 통해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양은 함께 수능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꿈을 꾸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폐암 말기로 지난 6일까지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있던 김동희 군(18)도 경기도 가평고등학교에서 수능에 임했다. 의료진은 건강상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김군의 의지를 당해내지 못했고 집과 가까운 가평고 특별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렀다. 김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0년 4월 청천벽력과 같은 근육암 판정 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병마는 김군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근육암에 이어 재생불량성 빈혈까지 발병했고 지난 8월에는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확인돼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현재 폐에서 종양은 제거했지만 기흉(폐에 구멍이 생긴 증상)이 생겨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병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지만 이한비 양과 마찬가지로 건강장애학생에 등록한 뒤 영상 수업으로 출석을 대신하는 등 학업을 놓지 않았다. 강원대에 수시 1차를 지원한 김군은 이번 수능에서 한 과목만 최저학력 기준을 넘으면 최종 합격한다. 다른 대학 두 곳에도 예비합격한 상태다. 김군의 어머니는 “수능 일 이틀 전까지 폐에 관을 꽂고 있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그러나 아이가 시험을 보기 위해 식사도 거르지 않고 악착같이 버텼다”고 전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매일경제는 수능시험 당일 고사장 스케치 기사를 게재하면서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날 응시한 수험생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기사들은 중병에 걸린 이 청소년들의 실명 등 신원을 밝히고 병명과 병력을 매우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폐암4기 판정을 받고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치료중

이던 김동희(18)군'이라고 밝혔다. 또 '김군은 2010년 4월 유잉육종이라는 희귀한 근육암에 걸린 뒤 잦은 전신마취로 기억력은 감퇴했고 항암치료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지만...'이라면서 김군의 병에 대해 상세하게 알렸다.

매일경제 역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한비(19)양'이라고 실명을 밝혔다. '이양이 자신의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0년' '직전해부터 느끼던 허벅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 ... 허벅지 종양은 제거했지만 암세포는 이미 폐로 전이된 상태'라는 등 이양의 병력을 상술했다.

이어 김동희(18)군의 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언급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0년 4월 청천벽력과 같은 근육암 판정 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병마는 김군을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다. 근육암에 이어 재생불량성 빈혈까지 발병했고 지난 8월에는 폐에 전이된 암세포가 확인돼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현재 폐에서 종양은 제거했지만 기흉(폐에 구멍이 생긴 증상)이 생겨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매일경제는 기사에 등장하는 이한비 양과 김동희 군의 얼굴사진까지 공개했다.

이같은 보도는 기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직 나이가 어려 감수성이 예민하며, 앞날이 먼 이들을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또 이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설사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언론이 중병에 시달리는 이 청소년들의 이름과 병명, 병력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공익상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일부인 청소년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상술한 보도는 결국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빚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